

해 있는 것에 격분해 유씨의 가슴
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이
다. 권태호 기자

조계사 폭력사태 가담

나주동아파 5명 검거

서울경찰청은 11일 조계사 폭력
사태에 가담해 폭력을 행사하고
수도권 일대 야시장 상인들을 상
대로 금품을 뜯어온 윤호석(25·전
남 나주군 남평면 교천리 105)씨
등 '나주동아파' 폭력배 5명을 불

술취한 아내 폭행치사

서울 노원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서울
노원구 중계3동 시영3단지 현성천
(46·무직)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유순자(36·파출부)씨가 술에 만취

여국교생 자기방서 멍든채 숨져

94. 6. 12

11일 오전 7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홍아무개(41)
씨 집 건넌방에서 홍씨의 딸(9·비
국교4)이 숨져 있는 것을 홍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홍씨는 "평소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딸이 10일 오후 학교에서 돌
아온 뒤 자기 방에 배설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심하게 꾸짖
고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 잠
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방문을
열어보니 반듯이 누운 채 숨져 있
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홍양의 얼굴 등 온
몸에서 멍이 발견된 점을 중시해
사체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유강문 기자